

“단속만으로 역부족”...광주 화물차 밤샘주차 ‘도돌이표’

북구청 교통행정과 단속현장 동행

자정-오전 4시 차고지 외 주차 불법
최근 3년 적발 건수 1천300건 안팎
운전자들 “차고지 출·퇴근 부담” 호소
전용 주차공간 확충 등 근본 대책必

“화물차 밤샘주차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다 보니 단속을 하지만, 현장을 접할수록 근본 대책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지난달 27일 자정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광주 북구 문흥동 ‘백문동 숲길’ 일원에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 북구청 교통행정과 직원 A씨가 이같이 말했다.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이날 단속은 간선도로와 주택가 이면 도로, 아파트 단지 등에 대형 화물차가 무질서하게 주차되면서 교통사고 위험 등에 대한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주 1회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이 법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영업용 차량을 등록된 차고지 외 장소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자정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광주 북구 문흥동 ‘백문동 숲길’ 일원에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 북구청 교통행정과 직원이 밤샘주차로 적발된 화물차 전면 유리에 ‘위반행위 적발보고서’를 부착하고 있다. /윤찬용 기자

그러나 해당 시간 백문동 숲길 인근 왕복 2차로는 양쪽 방면 모두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어 직선 형태의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때문에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은 정상 차선을 넘어 상·하행 분리선 위로 자발 수밖에 없었다.

또 몇몇 대형 화물차는 교차 지점 일부까지 차지하며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A씨 등은 밤샘주차 차량 전면 유리에 ‘단속예고’ 안내문을 부착했다. 이후 1시간 뒤 안내문이 부착된 차량이 그대로 있을 경우 위반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실제 이날 단속을 마친 오전 1시30분까지 이동한 차량이 없어 총 13대가 적발 대상으로 확정됐다.

확정된 차량의 차주에게는 과징금 20만원 부

과 사실을 알리는 ‘위반행위 적발보고서’가 통보된다.

적발된 차량 중에는 서울·경기·전남 등 타 지역에 차고지를 둔 차량도 다수 포함됐고 화물차 외에도 버스 2대, 리무진 1대도 단속됐다.

차고지가 다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단속한 자치구에서 해당 지자체로 위반 사실을 알리며

과징금 부과를 요청한다.

다른 광주 지역 자치구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밤샘주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화물차 밤샘주차 적발 건수는 ▲동구 195·98·88건 ▲서구 342·547·486건 ▲남구 106·134·117건 ▲북구 426·326·165건 ▲광산구 266·241·423건으로 집계됐다.

이렇듯 자치구별 단속 현황은 들쭉날쭉한 반면, 연도별로 2023년 1천335건, 2024년 1천346건, 2025년 1천279건 등 1천300건 안팎의 ‘일정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자치구 관계자들은 “단속 집중 지역을 피해서 주차하는 일종의 ‘풍선 효과’”라고 분석했다.

문제의 원인으로 자치구들은 물론이고 운전자들도 도심 내 주차 인프라 부족을 꼽았다.

차량별로 전용 차고지가 있긴 하나, 대부분 도심에서 먼 외곽에 위치해 차를 두고 주거 지역으로 왔다갔다 하는 게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화물차 운전자 장모(40대)씨는 “화물 배달 출발 시간이나 도착 장소가 유동적이어서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차를 세워둘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일선 자치구 관계자는 “밤샘주차 문제는 단속만으로 해결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화물차 전용 주차공간 확충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찬용 기자

“국무총리실 이관 항철위, 전면 쇄신 필요”

제주항공 유가족協 “성역 없는 진상규명”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된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향해 전면 쇄신과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2일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에 따르면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시행됐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소속 기구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는 것이다.

앞서 유가족협의회는 항철위가 이번 참사의 수사 대상인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며 독립을 촉구해 왔다. 이에 정치권이 응답하면서 항철위는 소속을 옮겼고 제주항공 참사 등 관련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유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이관은 조직 개편을 넘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향한 실질적인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항철위가 소속을 옮겨 독립성을 확보하게 된 것은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자 유

가족들의 처절한 투쟁이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단순히 명패를 바꾸는 것만으로 국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기존 조사 전면 폐기 후 재조사 실시 ▲밀실 조사 중단·유가족 참여 및 정보 공개 제도화 ▲인적 구성 전면 쇄신 등 조사 역량 강화 ▲과거 항철위 대상 감사·수사 실시 등을 촉구했다.

한편 항철위 등은 오는 5·6일에도 무안공항 내 보관 중인 제주항공 참사 잔해를 재조사 및 보관 개선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진행된 재조사에선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와 다수의 유류품이 추가 수습돼 참사 직후 수습 당국이 속도전에만 몰두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안재영 기자

현직 검사 교제 여성 ‘불법 촬영’ 의혹

현직 검사가 교제했던 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 검사를 조사 중이다.

A 검사는 현재 헤어진 여자친구와 교제했던 시기에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검사는 전남 소재 지청에서 근무했고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 사건을 넘겨받

은 전남경찰은 A 검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A 검사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재영 기자

이송 환자 ‘낙상 사망사고’ 응급구조사 벌금형

침대 다리 미고정에 후두부 충격

환자가 실려 있던 운반용 침대의 다리를 고정하지 않은 채 이송하다가 낙상 사망사고를 낸 응급구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용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응급구조사 A(20대·여) 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7일 전남 한 병원에서 운반용 침대에 실려 있던 환자 B(80대)씨를 이송하던 중 낙상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실려 있던 침대는 다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이 같은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는 후두부에 충격을 받았고 뇌출혈로 사망했다.

수사 기관은 A씨에게 B씨를 옮기던 침대의 다리가 제대로 고정된 게 맞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단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 역시 A씨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합의를 이룬 B씨의 유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과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영암 대불산단서 또 이주노동자 사망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에서 이주노동자 사망사고가 또 발생하면서 지역 노동·사회단체들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11시43분께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 내한 조선 1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A(35)씨가 전도된 1t 블록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대불산단 내 한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선 베트남 국적 노동자 B(37)씨가 그라인더 작업 중 아르곤 가스에 질식돼 숨졌다. 당시 사고 45분 전 같은 장소에서 다른 노동자가 먼저 쓰러졌다는 동료 증언도 전해졌다. /윤찬용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